

#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국낙농의 현실과 발전과제(Ⅰ)

## 장 일 광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  
서울우유협동조합 감사

### 1. 농축산업의 세계경제적인 추이

1) 세계의 농업은 2차대전 이후 서방국가들이 식량난을 겪은 빼저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지난 40여년간 계속함으로서 농산물의 과잉을 맞이하고 이어서 재고비축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하여 국제농신물 시장은 교역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된 무역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더우기 1980년도 초부터 EC의 확대 통합 움직임, 미국, 카나다, 이스라엘, 멕시코등의 자유무역협정,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유대강화 노력등으로 세계의 교역질서는 점차 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지속적인 세계 경제 발전의 가능성성이 크게 저하 되었다.

실감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만도 년간 1,000억 \$정도라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세계경제질서는 미국 중심에서 서독,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또 다른 축이되는 다국화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미국의 자구노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재정적자와 급격한 무역적자의 대응책으로 내부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쌍무간 또는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정을 통하여 무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등의 수입개방 압력등의 형태로 표면화 되었다.

2) UR협상은 이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에 대한 반작용, 새롭게 대두된 서비스, 지적소유권등에 관한 무역규범 설정등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핵심분야가 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무역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미국의 무역적자와 맞물려 농산물교역 질서의 회복이라는 당위성은 크게 강조되었다.

3) 협상전망은 미국의 걸프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쟁력 회복에 전력할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농업개혁을 주장하는 케인즈 그룹과 조부조항, 환경보존, 식량안보를 주장하는 E.C 및 아세아국가의 절충속에 미국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어느선까지의 기간중 국내보조 및 국경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전망을 할 수 있다.

## 2. 한국의 현실

60년대의 경제 재건기와 70년대의 경제 부흥기속의 농업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관념은 80년대부터 불식되어가고 이제는 세계 경제속의 한국의 농축산업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세계경제의 발전속에서 한국도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하는 개방화, 국제화의 경쟁속에서 우리나라로 경쟁력을 단기간내에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는바, 그 기간은 너무나도 촉박함을 느끼며 위기의식마저 고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 1) 농업전반의 현실

먼저 쌀 생산정책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농업정책은 더욱 명확하여 진다. 현재 년간 농어촌 예산 3조 2천억원중 벼(米) 수매비축자금으로 2조2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쌀 백만석에 드는 비용이 2,000억 원) 나머지 1조원으로 농어촌 부채탕감 재원 5천억 원을 빼면 미국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나온다.

정책방향은 미국 감산 계획인 것이고 수매량 감축으로 재고 감축, 비축 비용 감축, 소비확대 정책일 것이지만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영농조건이 좋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생산되게 되고 경작조건이 열악한 산간, 구릉지등의 전답은 자연히 경작 포기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91년 현재의 농촌인구는 10,450천명으로 도.농비율은 77 : 23(%)이나, 2001년의 도농인구 비율은 81.6% : 18.4%로 농촌인구는 5%정도 감축 할 것이며 산업구조도 현재의 농수산업 생산액이 전산업 총생산액 중 11.1%에서 2001년에는 7.0%로 급격히 그 비중이 저하되고 광공업(44.8%), 사회간접자본(48.2%)등이 중핵을 차지하는 공업

국으로 발전 할 것이라는 국토종합계획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의 한국농촌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00년대에는 현재의 논 130만ha가 80만ha로, 밭 70만ha가 50만ha로 1인당 쌀소비량은 120kg에서 90~100kg로 4,000만석에서 3,300만석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며 현재의 농촌인구중 60세 이상이 40%를 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700만명은 기계화, 전업화로 200만명 수준으로 농가수는 180만호에서 60만호로 조정될 대변혁을 향후 10년 내에 해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2) 낙농의 현실

낙농소득은 86년에 최저치를 보인 이후 89년의 원유대(6년만에) 13%인상에 따라 다소 향상 되었으나, 최근의 물가상승, 농가 생활비 상승, 낙농기자재 구입비 인상, 고용노임의 급속한 상승, 조사료비의 상승등으로 실질소득은 급격히 감소 하였다.

과거 10년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증가율은 1981년을 100으로 볼 때 2.86배가 신장 하였으나 낙농소득의 상대지수는 51로 절반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1985년을 기준으로 미곡가는 138%, 전국지가는 244% 의료비, 교육비등은 200%이상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현상과 고용 노동의 구득난으로 소규모 목장은 자가 생산 규모를 갖추지 못하여 대폭 포기하였고, 대규모도 감소추세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UR협상에 의한 개방화, 축산폐수의 강력한 규제, 낙농1세의 노령화로 후계자의 빈곤,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전망의 퇴조로 축산지망생의 전무상태로 자포자기애 빼져 희망을 상실하고 폐업할 기회를 기다리는 낙농가가 증가 일로에 있어 조속하고 희망적인 대응 방안이 없는 한 30여년을 공들여 이룩한 낙농기반이 붕괴될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 3. 향후의 대응과 전망

#### 1) 세계 낙농의 상황과 낙농의 위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GATT의 노력을 차치하더라도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 지구촌화 등의 변화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으며 우리도 그 물결에 이겨 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의 근본 뿐리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 장벽을 치고 영 위해 온 낙농을 세계무대에서의 낙농이라는 위상과 입지를 어떻게 정립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계의 낙농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세가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대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세계의 모든 낙농국들은 수세기 전부터 낙농을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여타의 농산물보다 2~3배나 높은 보조(표1)를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워 왔다.

그 이유는, 낙농은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또한 국토의 유지와 유기적 농업구조를 위하여 절대 불가결한 농업분야로 평가 받아 왔으며 한편으로는 낙농이 가지는 특성상 가장 열악한 노

동조건이 요구되며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낙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적어지게 됨으로서 어느 국가건 낙농을 유지시키기 위하여는 여타 농산물보다 높은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유제품만큼이나 국제교역이 왜곡되어 있는 품목을 농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예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제품의 국제시장가격과 우리나라 국내가격의 차이와 3~4배나 된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표2)에서와 같이 우리와 전혀 경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낙농산업을 자국민의 식량자급을 위해 보호 육성하는 것이지 결코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인한 생산과잉을 줄이기 위하여 80년대를 전후하여 각국이 계획생산제도를 도입한 아래 잉여재고가 감소되자(그림1) 세계의 유제품 교역 비율은 6.7%수준으로 격감되었고(표3) 그나마 그 중 약 70%는 E.C의 역내 조정용이어서 실제 국제간 거래량은 전체 생산량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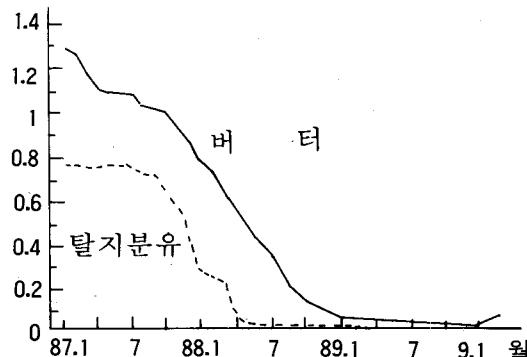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낙농수출국인 뉴질랜드외에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유제품을 수입개방하라는 요구는 당위성

(표1) 선진제국의 농산물 생산자 보조금 상당량 (PSE)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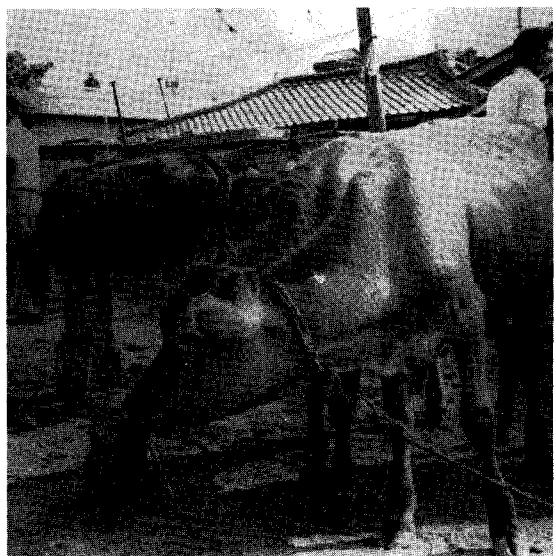
국별 년도 평균	품목	우 유		소, 송아지 고기		쌀		전 작물 평균	
		79-81	84-86	79-81	84-86	79-81	84-86	79-81	84-86
미국		55.2	66.3	8.8	9.4	6.8	61.0	15.7	28.2
캐나다		73.7	96.7	10.8	15.6	—	—	23.6	39.2
E C		66.7	55.8	41.9	53.0	14.6	68.0	37.1	40.0
호주		33.4	51.8	7.8	11.1	15.9	24.7	9.2	14.5
뉴질랜드		20.0	13.6	12.7	11.2	—	—	18.1	22.8
오스트리아		65.6	73.4	36.8	51.0	—	—	36.3	35.3
일본		78.8	81.8	53.4	55.4	70.8	85.9	57.3	68.9

자료 : OECD, 1987.

〈그림1〉



자료 : Agra Europe 「Milk Products」, 「Preserved Milk」



(표2) PSE 수준을 100% 감축시 각국의 유제품 가격 비교

구분 국가	농가의 원유 수취가격 (원/kg)	음 용 유 소매가격 (원/kg)	버터소매 가 격 (원/kg)	비 고
미국	233 (387)	541 (900)	2,048 (3,406)	
독일	271 (422)	509 (793)	3,560 (5,546)	
프랑스	262 (408)	602 (938)	4,236 (6,600)	
이태리	262 (408)	703 (1,095)	5,744 (8,949)	
그리스	271 (422)	606 (944)	3,671 (5,719)	
영국	225 (351)	474 (738)	2,419 (3,769)	
일본	451 (820)	975 (1,773)	7,715 (14,026)	

주) 1. 환율 : \$=709.18원, FF=122.42원, ¥100=464.11원, L=1,142.13원, Lit100=56.03원, Dr=0.006061 Ecu=5.90원, DM=413.87원

2. 자료출처 :

- 미국 : 현지조사(90.3) USDA 및 Dairy Situation & Outlook Report, 1989.
- 일본 : 낙농경제연감 1990, 낙농관계 통계자료 1990
- 기타국가 : EEC Dairy Facts & Figures, 1989

3. ( )는 PSE 값 100% 감축시 추정가격 : 각국의 PSE는 미국 66.3%

(표3) 세계의 우유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율

단위 : 천톤, %

구분 \ 년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생산량	413,447	419,129	426,320	427,087	428,567	432,371 (517,000)
교역량	탈지분유	1,575	1,402	1,659	1,126	432
	버터	1,639	1,736	2,021	1,451	938
	치즈	1,477	1,536	1,538	1,416	1,371
원유환산량	69,154	70,441	79,509	59,881	41,031	34,481
교역비율	16.7	16.3	18.6	14.0	9.5	8.0 (6.7)

- (주) 1. 원유환산율 : 탈지분유 11.7541 버터 23.26 치즈 10.9635 탈지분유 : 버터비율=10:1  
 2. 교역량은 수출량 기준임  
 3. ( )안은 소련 동구 포함

자료 : 낙농경제 연감, 낙농경제 통신사(일본), 1990.

이 없는 억지이며 횡포로 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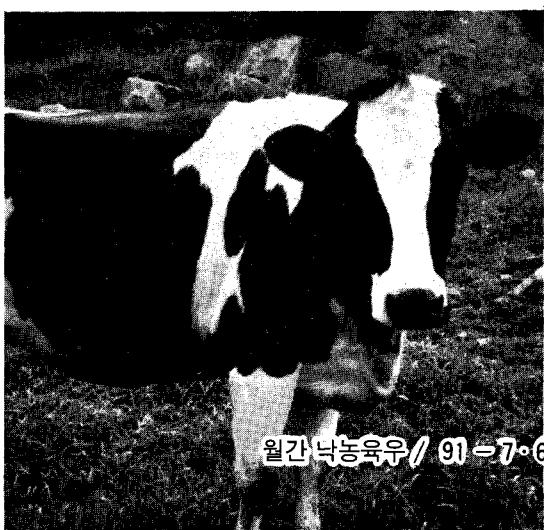
즉 E.C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유제품 수입개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비교우위도 아닌 자국의 낙농가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낙농가를 희생시키라는 논리 밖에 안된다.

나머지 한가지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낙농국들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유제품에 대하여는 결코 수입 개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낙농의 특성상 자유시장 체계에 방임도록 개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는 미국이 가장 자유무역을 주장하지만 실은 유제품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즉, 미국과 캐나다가 통상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상품이 국내유통과 동일하게 두나라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나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는 쌍방이 동 협정에서 자유거래를 제외시킨 사례이다.

또 GATT가입시 이어 유제품에 대하여는 수입 자유화 면제품목으로 전제 조건을 걸어 둔 것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태도이며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가

족농장의 존재가치를 보아도 도저히 낙농은 장래에도 수입 자유화 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현재 쇠고기까지 수입개방하면서도 우유, 유제품은 GATT로 부터 제소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장개방 할 수 없음을 이미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E.C나 스위스 등의 국가는 더 말 할 나위도 없이 UR에서 우리나라 통상대표들이 느낀바라 낙농을 어느나라도 UR에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공공연한 분위기라는 점을 보고 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상이 대체적인 세계 교역국들에 있어서의 낙농의 위치이며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UR이다, 수입개방이다라고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개방하지 않는 것 까지 우리 스스로 들고 나와서 자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논리 전개와 주장으로 찾을 것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들도 우리나라 전체의 경영여건과 소비자의 주장등으로 무조건 막아야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UR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농업구조의 개편, 사회적 변화, 소비자의 요구등으로 낙농가의 자구적 노력은 필연적인 것이다. 누군가 하여줄 것이라는 의타심과 안일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스스로 굳건히 일어서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

## 1) 우리의 대응

첫째, 현재의 부업축산 규모를 탈피, 자가 영농 규모로 경산우 30두 내지 50두 규모를 가족단위로 경영할 수 있도록 축산시설 우분처리의 자동화, 착유시설의 자동화, 사료급여 시설의 자동화를 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농촌의 농산물 감산에 의하여 파생되는 유휴 산간 오지의 토지를 조사료포로 만드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야산이나 국유지로서 초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영농규모에 맞는 기계화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기, 파종기등의 기계화시설을 인근 축산업자와 협업으로 구입 사용하는 문제를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네째, 환경시설 문제는 환경보존법 및 폐기물 처리법의 강화로 우리들 스스로 쾌적한 국토를 가꾼

다는 신념하에 축분은 최대한 퇴비화하여 국토 보존 비료로 사용하도록 겸하는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폐수에 의한 오염문제는 일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쇠고기와 우유의 수급 전망을 보면 쇠고기는 2001년도에는 현재의 1.90배, 우유는 2001년도에 현재의 1.8배의 수요가 예상되어 사육두수로는 한우가 90년말 1,576천두에서 2001년에는 2,308천두로 150%, 젖소는 90년말 512천두에서 638천두로 1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축산인들은 최소한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우리 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신선한 축산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력 증가에 매진 하여야 할 것이다.

## 4. 정책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 1) 낙농인의 각오

우리 32,000낙농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물결속에서 상대적으로 위축,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축산인 생활의 터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집단 행동으로 때로는 모든 정책당국의 쇠고기 수입 반대, 유제품의 수입개방 반대를 절규하며 몸부림도 쳤지만 세계적인 경제 추세 속에 역부족임을 실감케 되었으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것이며 97년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우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가 전업 규모의 성장을 위한 심리적 자세를 가다듬고 기계화, 시설개선, 조사료원의 확보, 종축개량에 의한 유량 및 유질의 향상, 저렴한 가격으로의 원유 대량생산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의 영역확충으로 소비의 확충 등 다양한 경쟁력을 신장시키면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시설, 기계화의 제도적, 금융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정부가 믿고 지원하여줄 수 있는 풍토를 먼저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별표 1. 축산물 수급전망 (수요량, 천톤)

1 인당		90	91	96	2,001	년 평균 증가율		
						80-88	89-2001	2001-
수요 KG	쇠고기	3.5	3.6	4.5	5.7	4.9%	3.2%	1.5배
	우유	9.6	10.1	11.5	13.2	4.9	4.8	1.8
수요량 천 톤	쇠고기	148	156	202	267	2.5	5.3	1.9
	우유	1,784	1,884	2,411	2,975	17.9	5.1	1.8

별표 2. 적정사육두수 전망

	90 (천두)	91	96	2,001	년 평균 증가율		
					80-88	89-2001	2001-
소 한우	2,088	2,095	2,448	2,945	1.6%	3.2%	1.5배
	1,576	1,557	1,878	2,308	-0.3	3.5	1.5
젖소 돼지	512	538	623	638	13.3	1.8	1.2
	148	156	202	267	13.3	5.4	1.9
닭	1,784	1,884	2,411	2,975	4.3	4.0	1.6

